



‘아름과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안광호

눈부신 아침햇살에 놀라 일어나 창문을 연다. 텅빈 발코니에 몸집 큰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날아와 뭔가를 쪼다가 인기척에 놀라 청명한 시드니의 하늘로 날아오른다. 뜰망한 어린아이의 눈처럼 초롱초롱한 이슬이 잔디에 매달린 채 눈이 시릴 정도로 청명한 햇살을 받아 크리스털처럼 반짝거린다. 잠시 눈을 감고 산소원액처럼 상쾌한 공기를 힘껏 들이켜본다.

아침 일찍 가이드가 마중 나와있다.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이 친구는 넉살좋은 얼굴에 말주변이 보통이 아니다. 고향얘기부터 시작해서 튜스타들의 스캔들까지 설새없이 떠들어대는 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 오랜만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난 살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맨리비치(Manly Beach)와 블루마운틴(Blue Mountain)을 보고 저녁에 시드니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잡겠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들은 채 만체 나는 눈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깥구경에 열심이다.

하늘을 찌를 듯할 소나무사이로 햇살이 자꾸 눈을

간지럽히고 코끝에는 시원한 바람이 걸려있다. 창밖으로 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 그리고 이를 즐기러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 한폭의 커다란 풍경화를 이루고 있다. 장관이다.

해변으로 내려와 크리스털처럼 맑은 남국의 아름다운 바다에 잠시 넋을 잃는다. 미알간 아침 햇살이 수면위로 내려앉아 마치 은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널브러진다. 목덜미가 미끈한 대양갈매기 몇 마리는 너른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즐고 있고, 몇 마리는 파도를 탄다. 멀리 쪽빛처럼 검푸른 남태평양의 물덩이가 해안으로 다가와 바위에 부딪고는 열길 물오름을 만들더니 이내 하얗게 부서진다.

젊은 연인들은 곳곳에 나란히 앉아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고 있고 이를 시샘하듯 갈매기들은 이들 사이로 회롱을 한다. 멧쩍게 물러나 하얀백사장에 앉아 바다며 파도 그리고 셸리비치(Shelly Beach)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절벽을 바라보다. 영화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에서 빠삐용이 자유를 찾아 뛰어내리던 영화속의 바로 그 절벽이다.

파란하늘과 담록의 바다사이로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Surfer들이 파도를 타고 넘실댄다. 자리를 펴고 누웠다. 읽으려고 가져온 책이 있었으나 베개삼아 머리에 받히고 하늘을 보니 모자창 사이로 뜨거운 남극의 햇살이 아물아물 작고 기다랗고 보드라운 빛줄기를 만들어 얼굴을 간지럽힌다.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다.

콜라를 사들고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걸어다녔던 거리를 맨발로 걸어보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한다. 반대편에서 덩치가 짐채만한 친구들이 걸어온다. 아내는 무섭다고 내 뒤로 숨는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G'day mate!(좋은 하루되길, 친구!)라고 웃으며 인사를 한다. 아내도 놀라 같이 인사를 한다.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

맞는 말이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보는 낯선 이들에게도 오래된 친구처럼 인사를 하고 농담을 건네는 이들의 순수한 친근함은 오랜 도시생활에 지친 나에게게는 여름한낮의 청량음료같이 느껴진다.

맨리비치에서 호주전통 요리인 양고기 스테이크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행선지인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멀리 보이던 새털 구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떠있다. 드디어 블루마운틴에 도착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소풍은 사람의 마음을 괜스레 들뜨게 하는 요상한 마력을 지녔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닌 듯 싶었다. 벽안의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괜시

리 소리를 질러대며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나나 집사 랍이나 짐짓 짐작은 척 차분하나 마음속으로 흥이 나긴 7살배기 아이들과 매한가지이다. 어느새 얼굴에 와 닿아 귓가에 속삭이는 산바람의 정감 어린 손길이며, 야트막한 언덕에 모여 앉아 실재없이 재잘거리는 어린이들의 한기한 정경은 소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이리라.

우리는 부쉬 워킹(Bush Walking)을 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열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직벽열차를 타고 5, 6백미터 절벽을 미끄러지듯이 깊은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위스에서 왔다는 젊은 아가씨 관광객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쓴살같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기차의 스릴감에 소리를 질러대는 어린이들의 힘박만하게 동그레진 두 눈들도 날 짐짓 미소짓게 한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에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며 걸었다. 나무사이로 빼꼼이 비치는 하늘도 보았고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 앞에 서서 물보라를 맞으면서 질깁대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치 골목대장처럼 가슴을 펴고 의기양양하게 걸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마냥 즐겁게 걸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숨이 턱에 차오고 등허리에서 땀이 났다. 양편의 커다란 산을 사이에 두고 골짜기사이로 흐르는 내가 초록의 그림물감을 풀어놓은 유리그릇

같은 선녀탕을 이곳 저곳에 빗어 놓아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막대기로 숲을 헤쳐 나가다 보면 열대 우림 특유의 카리카리한 향이 싱그럽다.

고대고사리다. 공룡시대부터 있었다는 이 고사리는 공룡이 사라진 한참 뒤인 지금에도 거대한 잎사귀를 하늘을 향해 뻗고있고 줄기는 옷나무에 엉클리어 흐드러져 있다. 이 거대한 고대고사리들은 열대우림을 햇빛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마치 나로 하여금 영화 “쥬라기공원” 의 어둡고 신비스러운 열대우림 속에 서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한참의 부시 트래킹 후 저 멀리서 보이는 빛이 점점 커진다. 어둠속을 거닐다 만난 이 빛이 눈에 익숙치 않아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그 빛 너머로 천길낭떠러지와 함께 세자매 봉이 눈에 들어온다. 세자매봉은 원주민 세 자매가 돌이 되어버렸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봉우리로서 진짜 자매인 듯 세봉우리가 서로 다정스레 꼭 붙어있다.

세자매봉을 비롯한 수십개의 봉우리들이 마치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싸 하나의 거대한 분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분지까지의 깊이가 어림잡아 500m는 될 듯 싶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저 아래끝 분지에 공룡의 머리가 붙쑥 붙쑥 솟아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란다. 참 장관이다.

호주의 아름다운 명산을 뒤로하고 나와보니 어느덧 땅거미가 거뭇거뭇 지고 있다. 피곤한 하루일정 탓에 차안에서 졸고 있던 나의 눈에 언뜻비친 것은 그 유명하다는 시드니의 야경이다. 유람선을 타고 내 눈앞에 펼쳐진 시드니의 마천루는 그 유명한 오페라하우스와 어울려 한쪽의 엽서사진같은 장관을 연출해낸다.

내 뒤로 보이는 거대한 하버 브릿지(Habour Bridge) 아래로 수많은 Ferry들이 파도를 헤치며 지나가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취해 있을 때 가이드가 옆에서 말을 건넨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을 다 보냈네요” 그렇다. 오늘이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시드니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을 찾은 여행자에게 아쉬움과 그리움을 준다. 벌써부터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아마 오늘밤은 아마 잠을 못이룰 것 같다.

잘 있거라.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마천루, 블루마운틴, Foster 맥주, 아름다운 사람들, 코알라, 캥거루, 아름다운 해변, 맑은공기, 기타 등등. 나중에 또 볼 때까지 제발 변하지 말거라.

